

해설이 있는 예술영화 '한눈에 쓱쓱'



'빈센트와 테오'

'에곤 실레: 욕망이 그린 그림'

'파리의 고갱'

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 10월까지 매일 마지막 주 수요일 진행 고흐 형제 그린 '빈센트와 테오'·사진 거장 살가두 작품 등 조명

빈센트 반 고흐, 폴 고갱, 에곤 실레 등... 대중에게 친숙한 예술가들이자 자기만의 독특한 창작세계를 열었던 화가들이다. 또한 삶은 순탄치 않았지만 작품을 통해 인정을 받은 대가들이다. 예술가의 삶과 창작세계를 영화로 조명하는 '해설이 있는 예술영화'가 올해도 시민들을 찾아온다. 시립미술관(관장 윤익) 하정웅미술관은 올해도 '해설이 있는 예술영화'를 진행한다. 오는 10월까지 매일 마지막 주 수요일(문화가 있는 날, 오후 2시) 하정웅미술관 2층.

특히 올해는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10년째 되는 의미있는 해로, 사진작가들도 조명할 계획이다. 강사는 조대영 영화평론가가 맡는다.

윤익 관장은 "예술영화는 미술의 언어가 어떻게 영상 속에서 구현되는지 다채롭게 느낄 수 있는 자리"라며 "시각적인 공통점이 있는 두 장르를 통해 예술가와 그 작품, 그리고 예술가의 삶을 조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흐와 동생 테오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빈

센트와 테오'(4월30일)는 '그 형에 그 동생'에 관한 이야기이다. 테오는 형의 작품 창작을 돕기 위해 가까이 후원자가 된다. 그는 형의 천재적 감각을 누구보다 높이 평가했지만, 안타깝게 그림이 매매가 되지 않으면서 고민에 빠진다.

'다큐멘터리 사진의 거장'인 세바스티앙 살가두의 삶과 작품을 조명하는 시간도 있다. 5월 28일에는 세계 도처에서 기아와 질병,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모습을 렌즈에 담았던 세바스티앙 살가두를 만난다. '제네시스: 세상의 소금'(감독 빈 벤더스)은 세바스티앙 살가두가 평생 찍어왔던 아웃사이더와 노동자, 이주민과 같이 다른 자연과 동물에 전착했던 시기를 다뤘다.

이어지는 영화는 '에곤 실레: 욕망이 그린 그림'(6월 25일). 디터 베르너의 2016년작으로 에곤 실레의 파란의 인생을 그린 작품이다. 영화는 28세로 요절한 천재 예술가의 짧지만 드라마틱한 삶을 담았다. 20세기 초 표현주의 화가를 대표하는 에곤 실레에게 영감을 준 뮤즈와 함께 스페인 독감

으로 생을 마감해야 했던 안타까운 이야기는 관객들에게 생각거리를 준다.

다음으로 '파리의 고갱'(8월 27일, 청소년 관람 불가), '애니 레보비츠: 렌즈를 통해 들여다본 삶'(9월 24일), '햇빛 속의 모나나루'(10월 29일)가 예정돼 있다.

한편 조대영 영화평론가는 "해설이 있는 예술영화'가 올해로 벌써 10년째를 맞았다. 올해는 사진작가도 참가해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돌아왔다"며 "평소 만나기 어려웠던 경이로운 예술가들의 삶과 창작세계 등을 통해 예술에 대한 미적 감성을 느끼고 사유가 확장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첫 시간은 사진작가 비비안 마이어를 다룬 작품이 시민들을 만났다. 무려 15만 장의 필름을 남긴 사진작가 비비안 마이어는 이름도 직업도 알리지 않은 채 작업을 했다. 보모를 비롯해 가정부, 간병인을 하며 삶의 마지막까지 사진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다. 그에게 사진은 어떤 의미이며, 무엇이 그를 카메라를 붙잡게 했는지 함께 숙고하는 시간이었다.

무료 상영이며 선착순 진행.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인문학 만난 국악, 관객에 한걸음 가까이

국립남도국악원, 24일 진도 옥주골 창작소 풍류음악회



진도 옥주골 창작소에서 매일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 '해설이 있는 풍류음악회'가 펼쳐진다.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켜켜이 쌓인 역사만큼이나 다채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국악. 국악에 인문학을 접목한 강의형 공연에 지역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24일 오후 7시 진도 옥주골 창작소에서 '해설이 있는 풍류음악회'를 진행한다. 관람료 무료.

이번 음악회의 강연자는 전통춤 이론가인 김영희 소장이다.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박사 출신인 김 소장은 김영희춤연구소를 통해 전통춤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으며, 이번 공연에서는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우리 전통춤'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강의에서는 조선 선조 시기에 탄생한 궁중정재와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특히 효명세자가 작곡한 창사를 중심으로, 1828년에 초연된 후 궁중에서 사랑받았던 '불날 꾀꼬리가 지저귀다'는 의미를 담은 궁중무가 소개된다.

이외 고성오광대놀이 제1과장 탈춤과 진주관변

의 마지막 명인 김수악 선생으로부터 전승된 영남의 대표 입춤도 소개할 예정이다.

강의와 함께 다양한 전통 공연도 함께 펼쳐진다. 국가무형유산 종묘제례악 이수자인 김경진의 '춘앵전', 고성오광대 전수자 김수보의 '고성오광대 문동복춤', 그리고 호남살풀이춤 이수자 김미선의 '진주교방굿거리춤'이 멋진 무대를 선보인다.

한편 국립남도국악원은 다양한 방식의 접근을 통해 국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일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 '해설이 있는 풍류음악회'를 진행하고 있다.

박정경 국립남도국악원 원장은 "이번 공연을 통해 관객들이 전통예술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국악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통예술을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국악 콘텐츠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호남 문화 알리는 '호남학산책' 원고 공모

다음달 2일~9일...문화·예술·역사 등 모티브 수기·칼럼

호남의 학술을 비롯해 사상, 문학, 역사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꽃을 피웠다. 선조들이 남긴 뛰어난 시가와 민속, 향약 그리고 의병으로 대변되는 나라사랑 정신은 오늘의 호남 문화를 일군 토대가 됐으며 내일의 호남문화를 견인할 중요한 자산이다.

호남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호남학산책' 원고를 모집한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은 '제5회 호남학산책 원고공모전'을 열고 5월 2일부터 9일까지 접수(이메일 또는 방문)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호남의 문화·예술·역사·명소 등을 모티브로 한 수기나 칼럼이 대상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다. 결과는 6월 중 발표 예정이며 당선작은 '호남학산책 메일링서비스'를 통해 발송된다. 시

상은 대상 1편 150만원, 최우수상 1편 100만원, 우수상 1편 50만원이 지급된다.

홍영기 원장은 "호남학산책은 1만1000여 명의 독자들에게 서비스될 만큼 사랑을 받고 있는 진흥원의 중요 사업 가운데 하나"라며 "이번 공모전을 매개로 많은 분들이 호남의 유서 깊은 문화와 역사를 다채롭고 의미있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호남학산책은 수신을 원하면 누구나 메일링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민속의 재발견', '호남 근대사문학', '문화유산 기록과 현장', '한 폭의 그림 하나의 이야기' 등 주제의 글들이 제공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대 정문 청춘의 열기로 물든다

광주민예총, 다음달 18일 '예술광장 in 광주'...스트릿댄스 등 공연

오는 5월 18일, 전남대 정문(5·18 사적지 1호)이 청춘의 열기로 물든다.

광주민예총예술단체총연합회(광주민예총) 청년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정문에서 청년 문화 축제 '예술광장 in 광주'를 연다.

이번 행사는 5·18의 정신을 예술로 계승하고, 아픔을 치유하며 청년들의 시선으로 미래를 그리고자 마련됐다. 단순한 공연을 넘어, 전국 각지의 청년 예술인들이 자신만의 색으로 광주의 역사와 문화를 해석하고 시민들과 교감하는 무대를 만들자는 취지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25명의 청년 예술인들이 전통악기부터 스트릿댄스, 밴드 사운드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음악으로 광주의 이야기를 새롭게 그려낸다.

공연은 생황이 연주하는 이선희의 '인연'으로 문을 연다. 애절한 선율 속 사람 사이의 끈끈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지는 길라몽기즈의 스트릿댄스는 광주의 젊고 자유로운 에너지를 무대 위에 펼쳐낸다.

마지막 곡은 '임을 위한 행진곡'. 5·18의 상징과도 같은 곡은 시대를 넘어 모두가 하나 되는 벽찬 순간을 선사한다.

광주민예총 청년위원회는 "5·18 민주화 운동은 광주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자유와 정의를 위해 싸운 청춘들의 터전임을 보여줬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젊은 세대가 광주의 아픈 역사와 아름다운 예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www.kwangshin.ac.kr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